

새로 나온 詩集

땅따먹기

金鍵一 지음

1974년 「시문학」지 추천완료로 시단에 나온 이래 「풀꽃의 연가」 「땀복새는 울지도 않았다」 등을 펴내는 한편 「남북시」 동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시인의 시선집. 모두 90여편의 작품을 「풀꽃연가」 「땅따먹기」 「꿈속의 고향」 「달빛같은 사랑」 「나비환상」 등 5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순수성을 지닌 것에 대한 사랑과 순수성을 잃은 것에 대한 아픔을 주로 노래하고 있다.

청학 / A5신 / 154면 / 2000원

동일주제에 의한 변주

이숙빈 지음

오랫동안 외국에서 연수활동을 해왔던 바이올리니스트 이숙빈의 시집.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체재하면서 영어로 썼던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한 작품 30여편을 한데 묶었다. 한글과 영어, 독일어 등 언어의 다국적 현상과 함께 서로 다른 문화권의 관습과 감각의 충돌이 야기하는 긴장과 갈등이 때로는 예술적 광기로, 또 때로는 푸성귀같은 풋풋함의 미학으로 나타난다.

늘푸른 / A5신 / 190면 / 2700원

자라나는 손톱은 사랑받을 수 없다

노신희 지음

“초록하늘 아래 / 팔 벌려 / 휘파람 부는 / 나 · 그 · 네”(「[입]」)라는 구절에서 보듯 이른바 ‘대중시’의 익숙한 정서가 주조음을 이루는 시집. ‘사랑’ ‘다툼’ ‘겨울연가’ ‘파스텔로 그린 사람’ ‘첫눈’ ‘귀향’ ‘애인’ ‘독백’ ‘이별’ ‘후회’ 등 얼핏 소녀적センチ멘탈리즘을 연상시키는 시어와 사상들이 시집의 전편을 관류하고 있다.

책파선택 / B6신 / 120면 / 2000원

구과발詩

李裕儼 지음

「밀알들의 영가」(1968), 「下南詩篇」(1974), 「草落島」(1983) 등을 펴내며 시쓰는 일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해온 시인의 제4시집. ‘구과발’이란 한정된 상황을 통해 우리가 처한 삶의 풍경을 노래한 연작시 「구과발시」 36편을 비롯, 「초락도」 상재 이후 씌어진 작품들을 4부로 나누어 묶고 권말에 시인의 편지 및 일기抄를 함께 실었다.

문학세계사 / B6신 / 128면 / 2400원

어둠과 빛의 코오러스

한국현대시인협회 엮음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한국현대시인협회(회장 李奉來)의 「20주년기념사화집」 모두 230여명에 이르는 시인들의 작품을 각 1편씩 모아 한데 모았는데, “이제 시의 생성은 시정신의 질에 의한 것이며 정서의 흐름이나 형식이나 운율에 의해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엮은이들의 말. 권말에 동협회의 회칙, 약사, 역대 회장명단 등을 덧붙였다.

뿌리 / A5 / 342면 / 4500원

사랑의 변주곡

崔夏林 지음

196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래 「우리들을 위하여」 「작은 마을에서」 「겨울 깊은 물소리」 등의 시집을 펴내며 ‘고통과 연민’의 정서로 개인의 내면풍경과 사회의 의미를 천착해온 중견시인의 시선집. ‘침묵의 빛’ ‘저녁바다에서 아침바다까지’ ‘마른 가지를 흔들며’ 등 3부로 나누어 60여편의 작품을 묶고, 시인 자신의 ‘시를 위한 산문’ 7편도 같이 수록했다.

문학세계사 / B6신 / 142면 / 2400원

얼굴없는 여인

金市宗 지음

196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시단에 나온 이래 노산문학상(1988) 등을 수상한 바 있는 중견시인의 제11시집. “들풀도 아끼는 재벌님 나라서 / 秋史의 난초 한 포기 / 두말 않고 억만금에 사들이나보다”(「멋진 재벌」)라는 詩句에서 보는 것 같은 풍자와 해학의 정신으로 세속의 삶을 꼬집고 있는 작품 70여편을 한데 모았다.

시문학사 / B6신 / 116면 / 2000원

지금은 안개속

金裕權 지음

1989년 「시대문학」 신인상을 통해 등단한 시인이자 TV드라마작가로도 활약하고 있는 김유권의 제2시집. 자연과의 친화를 통해서 삶의 양식을 해명하려 하는 문학적 의지를 담은 작품 60여편을 「안개와 물거품」 「얼굴 없는 것들」 「누구 아시나요」 「불꽃 움켜쥐고」 등 4부로 나누어 묶었다. 현실과 자연의 교차점을 노래하되 「인간법」보다는 「자연법」의 원리에 충실하게 다가간다는 점이 특징.

서울 / A5 / 108면 / 2500원

내일은 안개꽃 찾아가리라

김수자 지음

1983년 「시조문학」 추천완료로 시단에 나온 여류시인의, 「산나리」에 이은 두번째 시조집. 달무리, 반딧불, 도랑물, 토담집, 싸리문 같은 흠냄새 물씬한 시어들이 시조문학의 본령을 맛볼 수 있게 하는데, 형태상으로도 과거의 거의 없는 정통적인 3행시조를 고수하고 있다. 130여편의 작품을 「그대는」 「안개꽃」 「산을 바라보며」 「비오는 날의 오후」 「별 돋는 창가에서」의 5부로 나누어 실었다.

백상 / A5신 / 158면 / 2800원

보석의 노래

황금찬 지음

「현대문학」 추천으로 시단에 나온 이래 「현장」 「오월의 나무」 「오후의 한강」 「나비제」 등의 시집을 펴내며 가장 왕성한 시작활동을 벌여오고 있는 老시인의 신작시집. “내 이웃들을 마치 보석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영혼의 보석 한개”를 찾는다는 표제작을 비롯해 모두 60여편의 작품을 「보석의 노래」 「나의 소망」 「사랑과 지혜」의 3부로 나누어 묶었다.

청학 / B6신 / 120면 / 2000원

牛耳洞 · 7

洪海里 외 지음

시동인 ‘牛耳洞’의 일곱번째 동인지. 홍해리, 林步, 李生珍, 채희문 동인이 참여, 각각 20편 안팎씩의 작품을 한데 모았는데, “술하게 태어나 명멸하는 단명의 모임이 아닌 든든한 뿌리로 피워올리는 꽃이고자”하는 동인들의 “순수하고 다정스런 마음”들이 잘 드러나 있다. “강남땅 목련꽃이 질 무렵에야”로 시작되는 권두의 동인합작시 「우이동 사계」가 이채롭다.

동천사 / B6신 / 116면 / 2000원

풀꽃을 위하여

정희수 지음

「월간문학」 및 「시대문학」 신인상을 통해 시단에 나온 이래 「청녹두」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시인의 첫시집. 생명의 끈질김과 삶의 실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풀잎과 풀꽃의 이미지가 주종을 이루는 ‘부드러움과 점잖음의 미학’을 드러낸 시편 50여편을 3부로 나누어 묶었다.

서울 / A5 / 122면 / 2800원

郷土散策

楊源植 지음

「월간문학」 신인상을 통해 문단에 나온 이래 「미래시」 동인으로 활동하며 「관등부」 「봄이 오는 길목」 등을 펴낸 바 있는 시조시인의 세번째 시조시집. 시집 전체를 「향토산책」이라는 제하의 단행 연작시조 150여首로 묶은 다음 각각 「감꽃을 주워들고」 「농사수첩」 「상강절 아침에」 「천수를 누린 여백」 「돌맹이 눈빛」 「작대기 받치고」의 6부로 나누었다. “전통적 토착성과 모더니티의 접목”을 보여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뿌리 / B6신 / 188면 / 2500원

말씀

現代詩學간행위원회 엮음

월간 「현대시학」을 통해 시단의 나온 시인 67명의 합동앤솔로지. 1983년에 등단한 고경희의 「시월 시린 달빛이 / 아무리 푸르대도 / 순간 / 당신의 눈빛만은 / 못」하다는 「친견」을 비롯해 구순희 · 김경자 · 김영만 · 김지원 · 노수빈 · 박서혜 · 박송죽 · 신중혁 · 윤인영 · 이근식 · 이상규 · 임석순 · 장종권 · 정해송 · 조정권 · 추명희 · 홍석하 등의 작품을 한데 모았다.

뿌리 / A5 / 202면 / 2800원

저우실 노래

文斗根 지음

「시문학」지 추천으로 시단에 나온 교수(순천공업전문대)시인의 「나비를 잡으려면」에 이은 제2시집. 시인이 살고 있는 순천 梅各洞의 옛이름이자 시인의 당호이기도 한 ‘저우실’ 연작시 50편을 한데 모았는데, 저나무 울타리 안의 안온하고 평화로운 가정중심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펼쳐진다. 귀에 익은 7·5조의 가락 속에 형상화돼 있는 즐겁고 구수스런 정경이 「단란의 미학」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시인 최승범의 평.

청학 / B6신 / 110면 / 2000원

발명가와 발명이야기

권대섭 엮음

바른사 / A5신 / 240면 / 2500원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준 중요한 발명을 한 발명가와 그 발명과정의 이야기를 통해 과학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엮은 책.

활자인쇄술을 발명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를 비롯해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증기기관차를 만들어낸 스티븐슨, 엑스선을 발견한 쾨르겐, 빛을 만든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등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착상이나 발견이 모여 위대한 발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책뒤에 따로 '만화로 보는 과학세계의 여행'을 실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등을 익힐 수 있게 했다.

시장통 아이들

소중애 지음

현암사 / A5신 / 200면 / 2500원

도우넛의 뽕뽕린 구멍 속처럼 시장통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시장을 지나지 않고는 절대 못들어가는 시끄럽고 말쑥 많은 중앙국민학교의 시장통 아이들이 벌이는 갖가지 사건들을 재미있게 그린 장편명랑동화.

창문을 열어놓으면 선생님의 산수풀이 목소리보다 과일장수 아저씨의 외침이 먼저 들리는 곳에서 심술꾸러기 두백이, 정의의 용사 창건이, 눈치없는 경빈이, 깡패왕초와 길수, 예쁘지만 내성적인 혜인이 벌이는 우정과 갈등, 그리고 사랑이야기가 어린이다운 천진성과 시장통의 소란이 어우러져 흥미롭게 펼쳐진다.

파랑새

최준식 지음

파랑새 / A5신 / 192면 / 2500원

벨기에의 극작가인 모리스 메테를링크에 의해 1908년 씌어졌던 치르치르와 미치르의 이야기 「파랑새」를 우리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풀어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 오누이는 병들어 있는 마법사의 딸을 구하기 위해 추억의 나라, 밤의 나라, 숲의 나라, 죽음의 나라, 행복의 궁전, 미래의 나라를 여행하며 파랑새를 찾아다니지만 정작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찾던 파랑새는 창가의 새장 안에 있더라는 줄거리이다.

「내일신문 대특종」의 작가 최준식씨가 어린이시절 읽었던 「파랑새」의 감동을 그림동화로 재현했다.

발명왕들의 어린시절

이부춘 엮음

파랑새 / A5신 / 192면 / 2500원.

세계각국의 발명왕과 과학자 12명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읽기 쉬운 언어와 적절한 삽화를 곁들여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엮은 책.

화약을 만들어 왜구를 물리친 고려때의 최무선을 비롯해,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한 근대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 피뢰침을 발명한 벤자민 프랭클린, 천연두 예방백신을 발명한 에드워드 제너, 노벨상을 창설한 알프레드 노벨, X선을 발견한 빌헬름 쾨르겐, 상대성원리를 발견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물을 보는 방법과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비밀친구 에쿠나

조대현 지음

대교출판 / A5신 / 236면 / 2500원

빨간 곱슬머리 사이로 빨이 돌아나 있고 이마에 눈이 하나뿐인 '에쿠나'는 현대판 도깨비이다. 어느날 투명옷을 입고 장난을 치러 인간세상에 나왔다가 실수를 저질러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지구의 어린이에게 정체가 탄로난다.

그때부터 에쿠나는 찬이, 해지와 함께 찬이네 돈을 때먹고 돌려주지 않는 나쁜 어른을 골려주고, 그런 아버지가 싫어 집을 나간 소녀를 찾아주는 등 갖가지 모험과 사건을 겪어나간다.

세상사람들이 남을 미워하거나 서로 속이려는 마음을 버릴 때 평화의 꽃이 핀다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창작동화.

진주가 된 가리비

박숙희 지음

문진당 / A5신 / 182면 / 2800원

구정물 속에서도 제 몸속의 상처를 진주로 키워내는 조개처럼 아픔을 진주같은 아름다운 진실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창작동화집.

눈물없는 세상에 눈물의 시를 쓰는 시인의 이야기를 담은 「시인의 눈물」을 비롯해 「가시복 탁탁이」 「꽃으로 지은 대궐」 「철부지 꾸꾸」 「꿈마차 황금마차」 「애벌레의 꿈」 「가슴 속으로 흐르는 강물」 「명이의 새 아침」 「파란 미소」 「우두커니 아저씨」 「샘할아버지」 「천마를 탄 소년」 등 모두 13편의 동화를 한데 모았다.

영롱한 동심의 날개를 활짝 펴서 상상의 공간 속에서 마음껏 노닐게 하는 동화들이다.

세계를 가슴에 안고(상·하)

이영호 글 · 이남구 그림

계몽사 / A5신 / 각190면 / 각2800원

지난해 젊은이를 위한 에세이집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를 출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의 일대기를 동화처럼 엮은 어린이용 전기.

대우를 창업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으면서도 수천억대의 재산을 환풍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 수백억의 개인재산조차 사회에 내놓아 소유보다는 성취를 선택한 사람. 그리고 술은 마실 줄도 모르고 골프도 칠 줄 모르고 가족과 그 혼한 바깥스 한번 가본 일이 없다는 재벌총수 김우중회장의 자라온 이야기와 기업경영에 얽힌 에피소드, 경제인으로서의 경영철학 등이 실려있다.

아기씨 꽃씨 사랑의 씨

김태영 글 · 최달수 그림

현암사 / A5신 / 166면 / 2500원

성교육은 단순한 생식교육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자기일을 훌륭히 해내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활교육이란 관점에서 호기심으로 뭉친 아이들의 성에 대한 질문을 대화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성교육동화.

‘난 크지 않을 거예요’ ‘엄마 뱃속엔 어떻게 들어갔을까’ ‘넌 고추 없어’ ‘그건 비밀이야’ ‘고추에 수염 나와’ ‘선생님 다리를 만지고 싶어요’ ‘열매는 나무가 낳았나요’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남자는 좋겠다 서서 쉬하니까’ ‘무엇이 될고하니’ 등 모두 26편의 짧은 이야기들을 한권에 모았다.